

회원사 동정

원자력의학원

수술 불가능 암, 사이버나이프 치료로 70% 이상에서 완전 제거

- 국내 최초 도입 후 3년간 환자 1,000명 돌파, 치료사례 발표 -



수술이 불가능한 부위에 발생한 암을 사이버나이프로 치료하여 70% 이상의 환자에서 암이 완전히 제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의학원과 과학기술부는 6월

27일, 사이버나이프 국내 최초 도입 후 1,000번째 환자를 진료하고 지난 3년간 진행된 1,000여 치료사례를 발표하였다. 환자의 연령은 5세~88세 사이로 신경계 종양 치료가 406건, 체부 종양 치료가 594건을 기록했다. 사이버나이프는 내과적 문제로 수술이 불가능한 조기 폐암을 비롯하여 췌장암, 대장암에서 간이나 폐로 전이된 암, 자궁경부암에서 대동맥으로 전이된 암 등에서 특히 우수한 성적을 보였다.

대장암에서 폐나 간으로 암이 전이된 경우 일반적으로는 수술을 하게 되지만, 대동맥 주위 임파절이나 골반내 임파절에 암이 옮겨간 경우에는 수술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환자들은 항암제 치료에 의존한다. 원자력의학원은 이러한 환자들 중 항암제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환자 및 마취 불가 등의 이유로 수술이 불가능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사이버나이프 치료를 시행, 폐로 전이된 환자 70%와 임파절 전이 환자 71%에서 암 종양이 완전 제거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크기가 약 2.5cm 이하인 경우에는 90%이상에서 종양의 완전 제거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술이 불가능한 조기 폐암 환자의 경우 5명 중 4명(80%)에게 있어 치료부위의 종양이 완전히 제거

되었으며, 치료 후 1년간 추적관찰을 통하여 별다른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자궁경부암 환자 중 대동맥 림프절 전이가 나타난 환자 16명 중 15명(94%)의 치료부위 종양이 완전 제거됐다. 이는 일반방사선치료가 약 30%의 완전 제거율을 보이는데 비해 매우 높은 수치이며, 치료후 단 한 명의 환자도 심각한 합병증을 보이지 않아 사이버나이프 치료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이버나이프 방사선 치료는 일반적으로 호흡 등으로 인한 움직임이 적은 부위, 크기가 작은 종양에 큰 효과를 보였다. 수술이 가능한 초기 암의 경우 수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환자가 내과적인 질환으로 인해 마취 등 수술을 견뎌내기 힘든 경우 훌륭한 대안으로 기대되며, 기존 방사선 치료 후 추가 방사선 치료가 필요한 경우나 증상 완화를 목적으로 방사선 치료가 필요한 경우, 방사선 치료 후 국소 재발한 경우에 매우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성 및 악성 뇌종양과 기능성 뇌 병변, 뇌혈관 기형 등에도 훌륭한 치료 성적을 보였으며, 뇌 시술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장점이 있다.

사이버나이프는 정교한 임상 기술이 요구됨에 따라 치료경험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일본, 인도,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치료를 받기위해 내한하는 환자가 꾸준히 늘고있다. 원자력의학원 사이버나이프 센터는 아시아지역 최초의 국제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 6월 28일 현판식 행사를 가졌다.

이는 미국과 유럽에 이어 4번째 지정으로, 오는 7월 방사선종양학과 및 신경외과 의사, 물리학자, 간호사, 방사선사를 포함한 말레이시아 의료팀이 교육을 받기 위해 방문할 예정이다.

## 회원사 동정

### 방사선 암치료 기술 베트남에 제공

- 유휴장비와 함께 기술 전수 -

우리나라의 방사선 암치료 기술이 유휴장비와 함께 베트남에 제공된다. 과학기술부와 원자력의학원(원장 李水用)은 베트남에 방사선 암 치료기 이전을 추진, 설치를 완료하고 6월 13일 하노이에서 장비 인수인계식을 갖었다.

베트남 하노이 소재 103병원에 설치된 유휴 코발트 암 치료기는 2004년 1월 지방공사 강남병원의 폐기 장비를 원자력의학원이 인수, 방사선종양학과 류성렬 박사 주관으로 이전이 진행됐다. 고방사능 장비의 국가간 이전을 위하여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지역협력협정(RCA)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이에 따른 비용 4,000만원을 과학기술부에서 지원받았다. 이 치료기는 3억원 상당의 고가 장비다.

베트남 하노이시의 103병원은 방사선치료기인 코발트 치료기를 1대 보유하고 있었으나 노후되어 사용이 정지, 암치료를 중단한 상태였다. 이번의 장비 이전으로 환자 치료가 다시 가능해짐에 따라 원자력의학원으로부터 의료진에 대한 최신 암치료 교육 및 장비 보수관리 기술 전수 지원 등을 받을 예정이다. 코발트 치료기가 가동되면 103병원에는 연간 500명의 신규 암환자 진료 및 연 18,000건의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평균 인구 50만명당 방사선치료기 1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베트남은 현재 인구 8,000만명에 15기의 장비가 가동중인 열악한 상태다. 현재 국내에서는 방사선 치료장비가 고도로 전산화되면서 최신장비로의 전환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용중인 장비는 폐기하는 경우가 많다. 원자력의학원은 이같은 장비 이전을 통하여 한국-베트남 간의 의료계 교류의 폭을 넓히고, 아시아 개발도상국과의 의료 협력체제 구축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비 인수인계식은 103병원에서 베트남원자력위원회 위원, 한국 주재 RCA지역사무국장, 원자력의학원 류성렬 박사 및 기술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한편 원자력의학원은 지난해 3월 우리나라에 '육군 108 병원'으로 알려진 베트남 투란 홍 다오 병원과 협력협정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와 관련한 방사선 의학부문의 연수생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오고 있다.

### 광주과학기술원(GIST) 개원 10주년 기념식 개최

- 오 명(吳 明) 과기부총리 등 내외 인사 500여명 참석 -

광주과학기술원은(GIST, 원장 나정웅) 개원 10주년을 맞이하여 6월 13일 14:00, 행정동 대강당에서 관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뜻 깊은 10주년 기념식을 거행하였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지난 10년의 성과와 발돋움하기 위한 장기비전 선포식도 더불어 진행되었으며, 오 명(吳 明) 과학기술부총리, 김재철 광주

과학기술원이사장, 이병화 광주광역시부시장, 송광운 전남도부지사, 김주훈 조선대총장을 비롯하여 각 정당 인사 및 지역구 국회의원, 지역대학 총장, 지역기관 단체장, 과학기술인, 언론인 등 500여명이 참석하였다. 오 부총리는 축사를 통해 개원 이후 단기간 내에 국내 정상급 연구교육기관으로 성장한 광주과학기술원의 노력을 치하하고 앞으로도 지역 및 국가과학기

술의 미래를 개척하는데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광주과학기술원은 지난 95년 신입생을 처음 받아들인 이후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교수 1인당 SCI 게재는 문편수에서 4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하는 등 국내 최고수준의 대학원으로 성장했다. 또 지난 97년 첫 졸업생을 배출한 이래 지금까지 석사 1,318명, 박사 216명 등 모두 1,534명의 고급과학기술인력을 배출했다.

광주과학기술원은 오는 13일부터 18일까지 한 주간을 10주년 기념행사 기간으로 정하고 그 동안의 성과를 결산하고 향후 10년을 준비·모색하는 학술행사와 연구성과 전시회, 다빈치 교실, GIST 음악회 등 지역 청소년들과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과학문화행사를 마련하였다.

## 대구가톨릭대학병원 북한에 의료장비 기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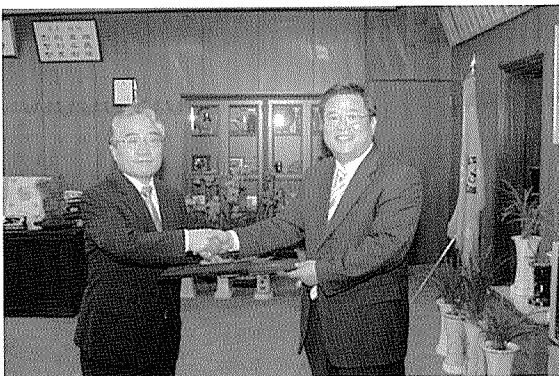
대구가톨릭대학병원(원장 채영희)은 6월 14일(화) 오전 11시, 북한 조선적십자종합병원에 방사선촬영기 등 의료장비를 지원하는 기증식을 거행했다.

대구가톨릭대학병원 개원 25주년(은경축)을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종교적 의미와 인도적 차원에서 추진하게 된 이번 의료장비지원 행사는 대북지원단체인 나눔 인터내셔널을 통해 천주교 대구대교구(중구 남산동 소재)에 보관중인 필수 의료

장비를 담은 컨테이너(40피트) 2대를 북한 조선적십자종합병원에 기증한다.

이번 대북의료장비기증 행사와 관련해 대구가톨릭대학병원 의료원장 채영희 신부님은 “사랑과 봉사의 가톨릭 이념 아래 대구가톨릭대학병원이 이러한 행사를 추진함을 큰 보람으로 생각한다”며 “특히 개원 25주년을 맞아 주관한 이번 행사를 통해 더욱 발전하는 대학병원으로 거듭 나겠다”고 밝혔다.

## 제주대학교, 영남대학교 e-러닝 교류협정 체결



제주대학교(총장 고충석)와 영남대학교(총장 우동기)는 제주대학교 총장실에서 e-러닝 교류협정을 체

결하였다.

양 대학교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으로 부각되고 있는 e-러닝 학습체제를 기반으로 한 학점교류, e-러닝 콘텐츠의 공동개발 및 활용, e-러닝 관련 기술 및 정보 교류 등을 통해 e-러닝 활성화와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에 의한 교육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로 하였다.

제주대학교는 지난 6월10일 강원대학교와도 e-러닝 교류협정을 체결하는 등 정부의 e-러닝 평생학습 국가건설 시책에 따른 폭 넓은 e-러닝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